



다시 찾은

〔오대산사고본〕
朝鮮王
朝實錄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Returned Books of the Odaesan Copy

002.2(11)-Устара, кунда, 63/68.

pvi

2013/35	Alisher Navoiy
2419	nomi O'zbekiston RA

목 차

세계기록문화유산 조선왕조실록	4
조선왕조실록과 춘추관	6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	8
조선왕조실록의 편찬	10
사 관	12
사 초	14
실록의 봉안·세초	16
실록의 보존, 포쇄	18
<i>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i> World Documentary Heritage	20
2006년 환수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 목록	22

세계기록문화유산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는 일찍이 **역사편찬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실록 편찬을 국가적 사업**으로 수행하였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제1대 태조 임금부터 제25대 철종 임금에 이르기까지 역대 왕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서술한 조선왕조의 국가기록이다. 총 1천7백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양으로 **국왕, 국정과 왕실문화와 같은 나랏일 전반에 걸치는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은 일반적인 역사기록과 다른 **성격을 갖는다.** 즉 전통 국가에서 한 왕조가 멸망한 후 후대의 평가를 담아 **서술하는 정사正史와 달리,** 현재 왕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 씌어지는 당대 사當代史이면서 동시에 정사 편찬을 위한 자료이기도 했던 것이다.

춘추관春秋館의 관원 사관史官은 **매일매일** 국왕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기록하여 실록의 기본 자료가 될 사초史草를 작성하였다. 사초는 절대군주인 왕도 볼 수 없게 함으로써 사관에게 독립적 신분과 사실 그대로를 기록[직필直筆]하는 고유한 권한을 보장해 주었다.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

왕께서 돌아가시면 춘추관에서 임시기구인 실록청實錄廳을 설치하여 사관이 작성한 사초와 각 관청의 기록을 비롯한 다양한 자료를 모으고 추려 실록을 편찬하였다. 완성된 실록은 영구보관을 목적으로 중앙의 춘추관과 지방 보관처인 사고史庫에 각 한 부씩 모셔졌다.

조선왕조실록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소실되어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으나 각고의 노력으로 복간復刊을 계속하여 20세기 초까지 봉화 태백산·강화 정족산·무주 적상산·평창 오대산사고본이 보존되었다. 이 가운데 오대산사고본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반출되었다가 관동대지진으로 대부분 소실되고 가까스로 74책이 화를 면하여 1932년에 27책, 올해 47책이 국내로 돌아왔다. 한편 한국전쟁 중 적상산사고본이 북한으로 옮겨져 현재 정족산사고본·태백산사고본과 오대산사고본의 일부가 남한에 남아 있다.

오늘날까지 이어진 조선왕조실록은 국보로 지정되었을 뿐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되어 그 가치를 전 세계인과 함께 하게 되었다.

조선왕조실록과 춘추관

조선시대 역사를 관장하는 기관은 춘추관(春秋館)이었다. 춘추관의 최고직인 영사(領事)는 영의정, 그 다음 직급인 감사(監事)는 좌·우의정이 겸직하였다. 춘추관은 왕의 명령과 말씀을 지어 올리는 예문관(藝文館) 관원을 전임사관(專任史官)으로 삼아 왕과 함께 국가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사초(史草)를 작성하게 하였다. 동시에 홍문관·승문원·사헌부·사헌부·육조 등 주요 관청의 관원들도 춘추관의 겸임사관(兼任史官)으로 임명하여 국가의 중대사를 빠짐없이 기록하여 실록 편찬의 자료로 삼았다. 지령에는 수령(守令)·도시(都事)를 외사(外史)로 임명하여 지방에서의 일들을 기록하여 올리도록 하였다.

왕의 사후 춘추관은 실록청(實錄廳)을 설치하여 실록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실록이 완성되면 춘추판사(春秋判事) 및 각 지방사고에 봉인한 다음 실록각 문에 도장을 찍어 봉인한 후 춘



오대산사고

김홍도, 《금강산화첩》, 18세기 후반, 개인 소장

추관 사관 외에는 절대로 열 수 없게 하였다. 춘추관 사관들은 실록이 벌레나 습기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포쇄曝曬하고 점검하였다.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실록의 안전한 보존을 목적으로 사고를 산 속에 설치함에 따라 지방사고의 관리와 실록 보호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지방사고 가까이에 위치한 사찰을 수호사찰로 삼아 사고를 지키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록의 직접적 관리는 중앙의 엄격한 체계를 유지하여, 포쇄와 점검 등 실록의 관리를 위해 사고 문을 열어야 할 경우 춘추관의 전임사관을 파견하였다.

비·바람 등과 같은 재해로 인해 사고 건물에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조차도 외사는 임의로 사고 문을 열 수 없었고 해당 지역의 관찰사가 춘추관에 보고하여 사관이 당도할 때를 기다려야 했다. 또한 상태보고서[형지안形止案]를 반드시 작성하여 서책과 사고 관리의 모든 내용을 문서로 남김으로써 관리 및 보호에 만전을 기했다.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 분상본의 확립은 조선초기 세종대의 충주사고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종 13년(1431년), 태조·정종·태종 실록을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충주사고에 보관하였다. 그후 세종 27년(1445년), 국가기록의 보다 안전한 관리를 위해 춘추관·성주·전주에 각각 사고를 설치하고 충주사고의 실록 복사본 세 부를 만들어 각각 봉안하였다.

선조 25년(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 그중 전주사고본만 남고 춘추관·충주·성주사고본이 불에 타 사라졌다. 전주사고본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아 전라도 정읍 내장산에 피신되었다가 해주를 거쳐 영변 묘향산에 보관되었다. 왜란이 완전히 끝난 후, 피신되었던 전주사고본은 마침내 고려시대 이래 천연의 요새지로 여겨졌던 강화의 마니산에 안치되었다.(804권 576책)

선조 36년(1603년)에 실록 복인(復印)의 필요성에 따라 13대 실록 804권 259책의 간행을 시작. 3년 후에 춘추관·태백산·묘향산사고에 각각 나누어 보관하고, 전주사고본은 다시 강화 마니산사고에



오대신사고, 1930년대

두었다. 또한 이때 전주사고본의 교정본을 오대신에 봉안하니 조선왕조실록 오대신사고본이 성립된 것이다. 모향신사고본과 마니신사고본은 이후 북방의 침입에 대비해 각각 무주 적상신사고·강화 정족신사고로 옮기고 춘추판사고는 이괄의 난(1624년) 때 거의 파괴되어 조선왕조가 멸망했을 때에는 퇴백신사고·오대신사고·정족신사고·적상신사고의 4사고본만이 온전히 남아 있게 된다.

오대신사고본은 조선후기를 거쳐 유지되다가 당시 남아 있던 다른 사고의 실록을 비롯한 전적·문서 등과 함께 1909년 대한제국 궁내부에서 왕실 기록물들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제실도서帝室圖書로 들어가게 되었다. 한일강제합방 후 제실도서는 이왕직도서과帝王職圖書科로 개편되었고, 1911년부터 조선총독부 취조국取調局에서 관리되다가, 1913년 일본 도쿄 제국대학으로 이관되었다. 1923년 관동대지진이 일어나 일본으로 간 조선왕조실록 오대신사고본은 총 74책이 최종적으로 남아 1932년에 27책, 올해 47책이 돌아와 현재 국내에 소장되어 있다.

조선왕조실록의 편찬

조선왕조는 왕이 돌아가시면 살아 계시는 동안 사관들이 작성한 사초史草를 정리하여 실록을 만들었다. 사초를 비롯한 모든 자료를 준비하여 실록을 만드는 일은 춘추관이 주관하였다. 특히 춘추관은 실록 편찬을 당해서 임시 관청인 실록청을 설치하고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여러 사람의 공동작업으로 실록을 편찬하였다.

실록청은 도청都廳과 3~6개의 방房으로 구성, 최고 책임자로 총재관總裁官을 두고 도청과 방에는 당상堂上과 낭청廳廳을 두었다.

초초初草 작성

중초中草 작성

정초正草 작성

각 방에서 시초를 비롯하여 각종 자료를 모아 작성한다.

도청에서 초초를 추가·삭제·수정하여 작성한다.

총재관과 도청 당상이 중초를 교정 보어 만든다.

직접 쓴 필사본 실록과 인쇄한 활자본 실록

필사본 실록

태조·정종·태종·광해군일기

활자본 실록

음해자(동활자) : 세종·문종·단종·세조·예종실록
갑인지(동활자) : 성종·중종·인종·명종실록·연산군일기
실록자(목활자) : 선조·인조·효종실록
현종실록자(동활자) : 현종·숙종·경종·영조·정조·순조
· 원종·철종실록

인쇄·완성

실록 봉안

세초洗草

춘추관과 지방 사고들에
봉안하기 위해 여러 부
를 활자로 인쇄한다.

원성된 실록을 춘추관과
지방 사고에 각각 안치
한다.

초초·중초의 글씨는 찢
어 내고 종이는 3:지서
造紙署로 보낸다.

사 관

춘추필법春秋筆法을 받들어 객관적 사실만 기록하고 평가는 후대에 맡긴다

실록 편찬은 왕이 돌아가신 직후에 시작되지만 이를 위해 왕의 생전에 충분한 자료를 수집해 두었다. 미래의 실록 편찬에 대비하여 그 자료가 될 나날의 일들을 기록하는 임무를 맡은 이들이 춘추관 관원인 사관(史官)이다.

조선왕조의 사관은 전임사관(轉任史官)과 겸임사관(兼任史官)으로 구성된다. 전임사관은 이른바 한림원원(翰林)이라 불리기도 했던 예문관 관원인 봉교(奉敎, 정7품) 2명, 대교(待敎, 정8품) 2명, 검열(檢閱, 정9품) 4명 등 총 8명이다. 왕이 계시는 곳이면 어디서든 붓을 들고 기록하기에 이들이 작성한 기록을 임시사초(侍史草)라 부른다. 비록 미관발적이라도 밀은 임무가 워낙 중요하고 임용절차도 까다로워 세인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한편 겸춘추兼春秋라 부르기도 했던 겸임사관은 주요 관청의 관원들로 춘추관의 관원을 겸직한 사관들이다. 겸임사관들은 각각 자신이 속해 있는 관청에서 일어나는 나날의 사건과 업무를 기록하여 춘추관에 보고하였다. 이를 춘추관일기春秋館日記라 불렀다. 입시사초와 춘추관일기는 연월일 순서로 정리하여 시정기時政記로 만들어 실록 편찬에 활용하였다.

한편 외사外史라 하여 각 도의 도사나 수령을 별도로 임명해 지방의 일들을 춘추관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중앙뿐 아니라 지방 곳곳에도 사관을 배치하여 실록 편찬의 자료들을 평상시에 기록하고 모아둠으로써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은 그 어느 역사서보다 상세하고 생생한 특징을 갖는다. 사관들은 권력에 굴하지 않는 역사기록 지세인 춘추필법春秋筆法을 받들어 객관적 사실만을 기록해 둘 뿐, 그 평가는 후대에 맡겼다.

사 초

실록을 만들기 위해서는 방대한 자료가 동원되었다. 그 가운데 사관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한 사초史草는 실록 편찬의 가장 중요한 자료였다. 사초에는 입시사초入侍史草와 가장사초家藏史草가 있다.

입시사초는 전임사관이 왕 가까이, 나랏일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기록한 사초이고, 가장사초는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와가서 정리하여 기록한 사초이다. 따라서 가장사초는 입시사초에 비해 글씨도 알아보기가 쉽고 내용도 정리가 된 편이다.

가장사초는 사관의 집에 보관해 두었다가 정해진 기일에 실록청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입시사초



인조무인사초

1638년,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는 경임사관들이 작성한 춘추관일기와 함께 시정기(時政記)로 만들어져 실록 편찬의 일차 자료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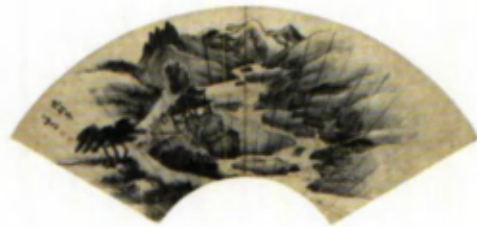
사관이 기록한 사초는 실록을 만들기 위한 기본 자료가기에 가장 필수적이지만 특히 조선시대의 사초는 사관 외에 왕도 볼 수 없게 함으로써 사관의 신분과 역사 기록의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었다. 사관들이 작성한 사초 외에도 각 관청의 등록·승정원일기·경연일기·일성록 등과 개인 문집·야사 등도 수집하여 실록 편찬 자료로 활용하였다. 실록 편찬에 쓰이는 이 모든 자료를 통칭하여 사초라 부르기도 한다.

실록의 봉안·세초

실록이 완성되면 총재관 이하 편찬에 종사했던 관리들이 참석하여 실록을 담은 궤를 기마에 싣고 춘추관으로 나아가 성대한 봉안식을 거행하였다. 지방의 사고에 봉안할 경우 왕명을 받들어 소임을 맡은 관리와 종사관 몇 명만이 실록을 싣고 가 사고에서 의식을 거행한 후 봉안하였다.

한편 실록이 완성되면 초초와 중초는 개천에서 내용을 지우고 종이는 바위에 말린 후, 종이 제작을 담당했던 관서인 조지서造紙署로 보냈다. 사초를 씻어 내는 일을 세초洗草라 하였는데 실록의 내용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또한 종이 재활용을 위해 행하였다.

세초는 당시 조지서와 가까웠던 세검정의 개천에서 주로 이루어졌고 차일암遮日巖이라 불린 남쪽 바위에서 종이를 말렸다. 또한 세초가 끝나면 수고한 관리들을 축하하기 위한 세초연洗草宴이 베풀어졌다.



세초하던 자리, 세검정
정선, 18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세초연

작은 붓이 어떻게 하늘을 다 그리랴,
아! 성대한 덕이 못 왕보다 앞서셨네,
십년 만에 비로소 편찬 일을 마치고
한가한 날 처음으로 세초연을 열었네.
저문 뒤에 밥 지으니 미식美食에 해당하고
비온 끝의 산과 물은 현악絃樂 소리보다 낫네,
옛날에 붓 잡던 일 이제 꿈만 같은데
완성된 글 열람하며 다시 눈물짓노라.

寸管那能盡畫天
於休盛德百王前
十年始訖編芸役
暇日初開洗草筵
晚後溪炊當美饌
雨餘山水勝鳴絃
舊時簪筆今如夢
手閱成書更泫然

조문명(趙文命, 1680~1732년), 「학암집鶴巖集」 권2

실록의 보존, 포쇄

바람을 쐬어 주어 습기를 없애고 병충해도 막는다

실록이 사고에 봉안되면 춘추관에서 파견한 전임사관이 아니고는 함부로 열어 볼 수 없었다. 조선왕조는 실록을 오래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사고의 문을 열고 책에 햇빛과 바람을 쐬여 습기를 없애고 벌레 피해를 예방하였다. 이러한 일을 포쇄(曝曬)라 하였는데 보통 3년마다 한번씩 봄·가을 청명한 날을 택해 춘추관에서 파견한 전임사관이 직접 사고의 문을 열고 행하였다. 전임사관인 한림팔원 중에서도 경험도 많고 먼 길을 갈 수 있는 건강도 갖춘 사관이 포쇄관으로 임명되었기에 포쇄는 특히 영광스러운 일로 여겨졌다.



오대산사고, 오늘

포 사 曝史

나는 상감의 명령 받들어
 역마驛馬 타고 추풍秋風에 달려 왔노라.
 재배再拜한 후 손으로 자물쇠 열고
 연대蓮臺의 언덕에서 책을 햇볕 쬐었네.
 금상자金箱子에 넣은 것이 서른 여섯 개여서
 태양이 중천에 당하도록 일했네.
 지나가는 바람이 때로 함께 펼치고
 건너는 새 갑자기 그림자를 남겼네.
 때때로 책장 속에서
 시비是非를 혼자서 절로 알게 됐노라.

我來御丹詔
 駟騎橫秋風
 再拜手啓鑰
 曝之蓮臺畔
 金箱三十六
 白日當天半
 過風時與披
 度鳥忽遺影
 時於簡編中
 是非獨自領

신정하(申靖夏, 1680~1715년), 『서암집愾菴集』 권3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World Documentary Heritage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Joseon Wangjo Sillok*) are the state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 featuring the chronological history of Joseon focused on the reigns of its monarchs, from the founder, King Taejo, to the 25th king, Cheoljong. A set of these voluminous records comprises about 1,700 books covering comprehensive subjects of state affairs such as the kings, administration and the culture of the court.

The Joseon Dynasty well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historiography from the beginning and thus promoted compilation of the annals as a national project, succeeding the tradition of the previous Goryeo Dynasty.

History officials (*Sa-gwan*) of the Spring-Autumn Office (*Chunchu-gwan*), a specialized office of history, recorded daily events at the court and the actions of the king to make *Sacho*, the primary reference for the final annals. *Sacho* was strictly kept confidential, even from the king, as a way to guarantee the independent status of the history officials and the objectivity of the records. The annals of a reign were compiled soon after a king's death at the temporary Office of Annals Compilation (*Sillok-cheong*), based on the *Sacho* of his reign, collected materials and government records. Consequently,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are an extensive collection,

comprising the annals of each king's reign accumulated over the ages.

For permanent preservation of the annals, one set was kept in each of several separate repositories such as *Chunchu-gwan* in the capital and provincial archives. Nearly all sets were lost in the Japanese and Manchurian Invasions, but thanks to consistent efforts to reissue the annals four full copies remained at domestic repositories—in Mt. Taebaek-san, Jeongjok-san, Jeoksang-san and Odae-san—until the early 20th century.

Among them, the Odae-san Copy (from Mt. Odae-san Archives) was taken to Japan where the majority of the books, except for 74 volumes, were destroyed in the Great Kanto Earthquake. During the Korean War, the Jeoksang-san Copy was taken to North Korea, leaving in South Korea only the Jeongjok-san Copy, Taebaek-san Copy and 74 volumes of the Odae-san Copy, which were returned from Japan in 1932(27volumes) and 2006(47volumes).

The extant copies of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in South Korea, recognized for their great value, have been designated National Treasures of Korea and UNESCO World Documentary Heritage.

2006년 환수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 목록

성종대왕실록成宗大王實錄 (9책, 38.7X31.3cm)

- 1책 권50 ~ 56
- 2책 권57 ~ 63
- 3책 권64 ~ 69
- 4책 권70 ~ 76
- 5책 권77 ~ 82
- 6책 권83 ~ 87
- 7책 권88 ~ 92
- 8책 권93 ~ 99
- 9책 권100 ~ 107

중종대왕실록中宗大王實錄 (30책, 38.7X31.3cm)

- 1책 권19 ~ 20
- 2책 권49 ~ 50
- 3책 권51 ~ 52
- 4책 권53 ~ 54
- 5책 권55 ~ 56
- 6책 권57 ~ 58
- 7책 권59 ~ 60
- 8책 권61 ~ 62
- 9책 권63 ~ 64
- 10책 권65 ~ 66
- 11책 권67 ~ 68
- 12책 권69 ~ 70
- 13책 권71 ~ 72
- 14책 권73 ~ 74

15책 권	75 ~ 76
16책 권	77 ~ 78
17책 권	79 ~ 80
18책 권	81 ~ 82
19책 권	83 ~ 84
20책 권	85
21책 권	86 ~ 87
22책 권	88 ~ 89
23책 권	90 ~ 91
24책 권	92 ~ 93
25책 권	94 ~ 95
26책 권	96 ~ 97
27책 권	100 ~ 101
28책 권	102 ~ 103
29책 권	104 ~ 105
30책 권	1 ~ 2

선조소경대왕실록宣祖昭敬大王實錄 (8책, 43.0×32.0cm)

1책 권1(목록·서·권1~2)

2책 권2(권3)

3책 권3(권4~6)

4책 권4(권7)

5책 권5(권8)

6책 권6(권9)

7책 권7(권10~13)

8책 권8(권14~16)

4300 cell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2006 조선왕조실록 환수기념 특별전

다시 찾은 朝鮮王朝實錄 오대산사고본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Special Exhibitio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

Returned Books of the Odaesan Copy

인쇄일 2006년 7월 24일

발행일 2006년 7월 29일

발행처 | 국립고궁박물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57

전화 | 02)3701-7500

팩스 | 02)3701-7640

홈페이지 | www.gogung.go.kr

편집 및 인쇄 | 조예디자인

© 국립고궁박물관 문화재청 2006

Special Exhibition.

Published July 29, 2006

Organized by th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ll rights reserved.